

# 근대화시기 주거공간을 통해 본 아동관과 아동공간의 고찰\*

- 1920년대~1960년대까지 -

## Attitudes toward Children and Spaces for Children During Korea's Modernization Period as Explored through Housing Cultures and Floor Plans

: From the 1920s to the 1960s.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연구소

선임연구교원 은 난 순\*\*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ost Doc. Researcher : Eun, Nan-Soon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ttitudes toward children and spaces provided for them, by analyzing people's daily lives in housing spaces and architects' floor plans between the 1920s and the 1960s. Different kinds of data were obtained from a variety of early literature, research reports, newspaper articles, historical documents, and magazines from the period.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Before modernization in Korea, children had been regarded as immature persons. Confucian ideas of children viewed them as "small adults" or "immature adults." Thus spaces for children's daily lives were neither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the adults' nor deemed important. However, since the Western invasions and colonization by Japan, a remarkable change in the attitudes toward children took place. Children began to be considered a hope for the future as well as members of modern families.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word, "*eorini* (children)," by Mr. Bang Jeonghwan, brought about a significant change in social consciousness of children.
2. The appearance of "*adongshil* (children's room)" on architects' floor plans, which was a result of the social critique against androcentrism during the 1930s and 1940s, was highly meaningful. The new floor plans not only emphasized rationalization of the space but also upgraded the children's status in the family.
3. Since the liberation (1945), children's space was differentiated from parental space by the introduction of private rooms and shared spaces. The privacy of each generation was expressed by the division, and the generations were considered equal in this space distribution. In conclusion, the appearance of children's rooms required conflict-laden changes of social ideals and of the family system. It also was a symbol of modernization.

---

▲주요어(Key Words) : 아동실(children's room), 아동관(attitudes toward children), 주거계획(housing plan), 근대화(modernization), 건축가(architect), 가정박람회(home exhibition), 전국주택설계현상(national housing design contest)

---

\* 본 연구는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한국근현대(과제번호 2003-073-CS1001)

---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 저 자 : 은난순 (E-mail : eun117@catholic.ac.kr)

## 1.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문의 계승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가계의 노동력 제공이란 집단주의적인 가치관하에서 개개인의 이념과 가치 추구는 드러나지도 않고 주장할 수도 없었다. 하물며 대가족이란 제도 하에서 미성숙한 존재로서 어른이 될 때 까지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아동들은 그들만을 위한 생활환경을 갖기란 어려웠다. 아동기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완성된 인격체인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아동의 성장과정을 치부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일상생활과 생활환경은 어른의 그것을 모방하도록 유도되었다. 그러나 서구의 문물과 이념이 소개되고 일제강점에 의한 강압적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 줄 대상, 즉 아동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아동관의 변화는 단순히 이념적인 사고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생활 및 주거공간 의식의 전환과 맞물려, 가족관계의 구도를 바꾸어 놓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화기를 거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아동관이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또 일상생활의 주요 무대인 주거공간 분석을 통해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아동관과 생활상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족 내 아동의 지위 변화와 아동관의 변화가 주거공간 계획과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인식의 틀과 사회구조적 변화가 아동 공간환경에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1920년대 이전 전통적 아동관과 주거공간에 나타난 아동의 일상생활 특성은 무엇인가
- 둘째, 1920년대 이후 근대적 아동관과 생활영역의 변화는 무엇인가
- 셋째, 아동실의 의미와 주거공간 계획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

###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920년대를 포함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개화기로 지칭되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변혁을 경험하였으며, 아동에 대한 시각 역시 이 시기를 전후로 눈에 띄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언어의 탄생과 문화적 운동, 새로운 학문 영역 역시 이러한 변화를 증거해 주는 증거물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아동기란 고유한 시기를 인정하는데 있어 수많은 선각자들의 노력과 학문적 발달, 언론매체의 동원이 뒤따랐다. 개화기라는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기 위해 주저함이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은 '아동기' 개념의 성장을 부추겼으며, 당시에 사회를 지배했던 유교적 이념조차 아동 존재의 개별성과 아이덴티티를 인

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못하였다.

'어린이'란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킨 소파 방정환 역시 개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아동기를 맞이하였으며, 어린이날 제정(1923년)을 통해 아동관의 새로운 기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1920년대는 전통적인 아동관이 근대적인 어린이관으로 옮겨가는 시기로 아동에 대한 인식의 틀이 재형성되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신생활운동(1923년)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가족의 생활을 담는 공간으로서의 주택은 아동을 포함한 가족 이념과 가족관계의 변화로 '개선'과 '혁신'이란 당대의 요구가 실험되던 장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1920년대를 전후로 한 아동관 변화와 주거공간에서의 공간적, 생활적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1920년대 이전 유교문화권하의 전통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봄, 다음으로 근대화가 한창 진행 중인 1920년대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1920년부터 1960년대까지는 주택 근대화 시기(유재우, 2004)로 주택근대화에 관한 관심이 신문과 잡지 등의 활자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되었고, 일부 지식인도 주택개량에 대한 의사 표현에 동참하였으며, 일반인들의 관심이 확산된 시기이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시기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핵가족이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로 현대사회로의 변화가 발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이며, 아동공간과 실내계획 역시 상업화되는 양상이 드러나는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후속 연구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방법은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기사, 고문헌, 잡지, 연구논문, 행사자료집 등의 문헌고찰로 하였다.

가족 내 아동의 지위와 양육환경 변화와 같은 세부주제는 산업화와 자본주의 등 거시적 요인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모리스(E.W.Morris)와 윈터(M.Winter) (1978)는 '가족'을 미시사회로 보고 가족이라는 단위의 유기체적 특성을 중시하였으며, 사회체계와의 상호영향성을 중시하여 구조적 맥락에서 주거현상을 분석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시사회학적 접근은 사회규범 즉 문화규범(cultural norm)과 가족규범(family norm)의 조절과정에서 각 가족이 만족을 추구하고 변화에 적응, 대처해 가는 방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아동의 일상생활의 장(場)인 주거공간 역시 '단순한 행위환경'으로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개인적인 생활경로와 행위의 산물이자 사회제도적 제약 하에 행위 규제가 이루어지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환경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측면에서 한국 주거에 나타난 아동관과 아동 공간의 변화에 대해 당시 사료와 논의들을 토대로 담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새로운 아동관의 등장에 따라 어린이라는 계급과 계층이 부각되는 등 가족 내의 아동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공간적 측면에

서 아동의 지위 변화가 일상생활의 장인 주거공간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주택평면 계획상에 드러나는 특성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 II. 전통적인 아동관과 아동의 일상생활

### 1. 전통적인 아동관

: 장유유서가 남긴 예의바르고 복종하는 아이

아동의 존재와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 문화, 시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어 진다. 필립 아리에스(Aries Philippe)는 “어린이란 역사성이 소산이며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역사와 문화에 지배된다”라고 주장하였다(이경희 외, 1993 재인용). 또한 “어린이 이해는 단순한 심리학적 사실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당대의 아동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정의되어졌으며 아동 자신의 특성만이 아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문화에 대한 고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구의 경우 고대부터 현대 초기까지는 영아와 어린 아동을 작은 어른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도 맥락을 같이하였다.

조선시대 아동관은 장유유서에 기초하여 어른에 대한 복종과 예의를 절대 덕목으로 삼았다(한국역사연구회, 2002). 따라서 전통적인 아동기 개념은 아동의 본성은 선하며, 신체적 측면에서가 아닌 도덕적·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동일시하는 성인축소적 존재로 보았다(신양재, 1994 재인용). 한국 전통사회에 있어서 아동을 일컫는 용어로는 동몽기가 있는데, 동몽기는 8-14세까지의 시기로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걸친 아동들이 해당되는 시기가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아동을 바라보는 우리 선조들의 관점은 동몽(童蒙)이라는 말이 가지는 뜻에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주역에 의하면 몽(蒙)은 산기슭을 흐르는 물의 형태를 비유한 것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또한 ‘막혔던 것이 터지는 상태’로 샘에서 흐르는 물은 가날프지만 나중에 큰 강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동몽도 교육을 잘 받으면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유점숙, 1991). 즉 동몽기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발달단계로서, 아동을 교육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존재로 본 것이다.

예기(禮記)에 의하면 아동을 어린선비(蒙士)로 일컬음을 볼 수 있는데(이정덕, 송순, 1993), 이 또한 어른과 비교했을 때 불완전한 자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존재인 아동을 멸시하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의 존중해 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통적인 용어에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동은 성인들의 세계에 편입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동 개개인의 개성은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아동의 생활재에 대한 배려 역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어른과 똑같은 모양의 옷을 입고 똑같은 공간에 앉아 어른처럼 글을 읽고 바느질을 배우는 모습에서 어른을 준거(準據)로 한 당시의 아동관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 1900년대 초 여아들이 입은 옷. 저고리 길이가 짧은 모습이 당시 젊은 부인 옷차림과 유사하다(그림출처: 단국대학교, 2000).



<그림 2> 1920년대 이전의 아이들은 ‘불완전한 존재’, ‘어른에게 복종하는 존재’였으며 아동복도 따로 없이 안 입는 어른의 옷을 줄여 입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가난한 집 아이는 남의 집에 품을 팔기도 했다. 노동 역시 어른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며 미성숙한 어른인 아동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기도 하였다(그림출처: 한국역사연구회, 2002).

### 2. 주거공간에 갇힌 아동의 일상생활

: 놀이, 침선, 방적, 편지쓰기, 글읽기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아동은 불완전한 어른으로서 배움을 통해 성인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아동에게 중요한 환경은 교육환경이었다. 그러나 당시 교육환경은 어른들의 세계에 편입된 채 이루어졌으며, 무엇을 배우고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했지, 어느 공간에서 어떤 물리적 환경의 지원을 받느냐는 그리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전통주택에는 아들방, 딸방이라는 명칭을 지닌 자녀들의 고유영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구나 일본 등 세계의 어느 문화권에서

도 예전에는 자녀방 또는 아동실이라는 공간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는데(박명희 외, 2003), 이는 가족간의 관계와 지위면에서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많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은 동성의 성인 근처에 머무르면서 성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아동기의 특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장소 역시 성인들이 거처하는 방의 분위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아동의 지위로 인해, 거처하는 방이 따로 계획되기 보다는 사랑채의 경우 성인이 거처하는 사랑방 건너편에 위치한 건넌방에 거처하도록 하였으며, 동일한 공간에서 혼례를 올리기 전까지 성장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사적행위, 사적 생활에 대한 배려는 무시되었으며, 그로 인해 성인들과 함께 하는 환경 내에서 공간의 사용은 주도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종속적인 자세일 수 밖에 없었다.

남녀유별의 유훈(柔訓)으로 인해 안채와 사랑채로 분리된 어른들의 준별거 생활은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대물림되었다. 자녀들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적 기대 속에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내아이는 대개 7-10세가 되면 어머니 곁을 떠나 사랑채나 초당에서 거처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훈도를 받으며 자랐고, 딸은 안채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르다가 시집갔다. 이러한 생활상은 당시에 아동기를 보냈던 이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옛날엔 아주 엄하게 들어앉아, 내가 촌에서 살았어두 이 큰 대문 배갈엘 못 나와 봤어요. 그 안에서만 돌구, 사내 하인이 마당을 썰든지 해서 안마당엘 있어든 마당에 못 내려서는 뱀이구, 방에만 있는 게구. 그래 내가 자랄 때두 뱀엘 못 내려가 봤어요. 댕겨야 일가집 아니우? (이규숙, 뿌리깊은 나무, 1984)

1905년생인 이규숙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일곱 살이 되자 그녀의 아버지가 “안대문 안에 가두었다”고 당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회상했다. 이 때부터 어른들 곁에 조신하게 앉아 문안 편지 쓰는 법을 배우고, 다듬이질과 바느질 따위의 여공(女工: 여자들이 하는 길쌈 따위의 일)을 익히는 것이 그때부터 그녀가 해야 했던 일이었다. 양반계층의 여아들은 어려서부터 남녀내외의 법도를 철저히 따르도록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는 사랑채로의 출입금지 등 활동공간의 제한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그땠 어디 장난감이 있어. 죄 손으루 맨들어 가 지구는 풀루다 각시루 맨들어 옷두 해 입히구, 그 저 앉아서 그런 장난이나 허구, 화초나 저런 데 심는 거 허구.....그런 데 돌아댕기다가 일곱살에 간헐어... 명지, 모시 그런 거 다 다듬는데 명지는 은제 두디리논고 허니 이 더울 때 헌다구...일곱살에

앉히드니 우리 어머니가 다듬이짜를 맞춰 해 보신다구. 애들이 맞춰요, 그거를? 다듬이 방맹이가 낫이 아니우. 낫이 어울려서 해야지, 안 맞으면 똑딱 똑딱하거든. 아니, 나가 놀구 싶어 죽었는데 들어앉아서 이걸 허자구 그르시네. 가리킨다구. 일곱살 먹은 게 뭘 하우.....그리구 밤낮 문안 편지 쓰는 걸 가리켜요. 친척집이 무신 때 되든 다 대소사에 펜지 써는데 말세 잘못 되든 고쳐야 헌다구 가리킨다구...(이규숙, 뿌리깊은 나무, 1984)

이처럼 안대문 안에 갇힌 여아들은 다듬이질, 바느질, 문안편지 쓰기, 책읽기 등을 하며 예비 어른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일찍부터 배워나갔다. 주변 자연물을 이용해 하던 일상놀이<sup>1)</sup>는 걸음마를 마친 후 불과 몇 년 동안만 가능했으며, 지금의 초등학교 학령기에 접어들면 성인의 거처에서 가내학습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밟아 갔다.

1917년생인 무남독녀 성춘식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고을 고을에 보통학교가 들어선 뒤였지만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집안 어른들은 여자가 글을 배우면 못쓴다고 해서가 아니라(조부는 완고하셔서 안 보내려고 하심) 학교가 너무 멀어 다니기에 불편하고 행여 추운날에 감기나 얻지 않을까 하여 그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집에서 언문을 배웠으며,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글을 익혔다.

“그래 집에서 자심(자습)을 써게 가지고, 옛날에는 어머니가 갈채신데(가르치시는데), 군디목이라고 띠운데, 옛날에는 조우도 없어 갖고 아까와서 이런 송판때기(소나무를 쪼서 만든 널판지)에다가 분을 보향게 칠해 가지고 ‘분판’이라, 금서 거그다 먹으로 가지고 글씨를 써면 보한 데다 까망 걸썬께네.....”. “이웃(이웃)에도 일가 딸네가 같은 나이에 있잖아요? 있으면 서로 편지를 써 가지고 ‘동류(친구)야 살퍼라. 그럽고 보고 섭다’ 이라고 넌 어떻고 난 어떻고 편지를 써 가지고 서로 그 집에 갖다 문구용으로 갖다 드리 미고, 가아가(그아가) 또 내한체로 편지해 가지고 그래도 하고”(성춘식, 뿌리깊은 나무, 1990)

그녀는 일곱살쯤에 언문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장차 시집 가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될 행실 교육도 ‘귀에 못이 배기도록’ 함께 받았다. 그리고 여자가 배워 익혀야 할 ‘침선 방적’에서 ‘방적’에 해당하는 길쌈은 친정 어머니가 “너는 이 힘든 일만큼은 몰라서라도 피해라”며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침선’인

1) 공기놀이, 자세받기(엮전 다섯 개를 손들에 올려 받는 놀이), 솜바꼭질, 땅뺨기, 옥대차기(땅바닥에 금을 그어 칸을 나누어 놓고 납작한 돌을 차 나가 그 칸을 다 통과하는 놀이) 등

바느질은 그때부터 배웠다. 글은 주로 어머니에게서, 바느질은 할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한다.

이러한 아동의 일상생활은 남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천시 표교리에 사는 김주섭씨는 어린시절 조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호랑이 할아버지로 묘사하였다(이천시, 2001). 그는 어린시절에 사랑방에서 할아버지에게 소학과 사서 뿐만 아니라 예절과 사람 됨됨이 교육을 받으며 컸으며, 소위 전인교육의 실체라고 덧붙였다.

“할아버지가 기침하시고 나면 우리는 할아버님께 세숫물을 올리고 세수를 마칠 때까지 그 옆에서 수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안편지 쓰는법, 봉투 쓰는 법 등을 배웠지요.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3년상을 할아버지와 함께 치렀지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이천시, 2001)

하지만 주거내 공간보다는 집주변에서 또래놀이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서민집 아이들은 양반에 비해 사회적 규율의 지배를 적게 받았으며, 아이들은 놀이와 허드렛일 거들기 등으로 삶의 방식을 익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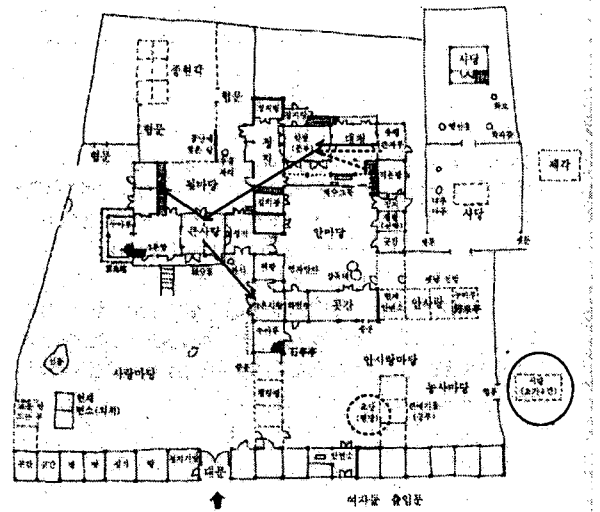
### 3. 어른 중심의 공간에 묻힌 아동 공간

전통사회의 자녀 공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들과 딸의 성장과정에 따라 옮겨 다니는 거처를 살펴보면 된다. 아들과 딸은 어려서부터 안채, 사랑채로 나뉘어 서로 다른 문화적 기대 속에서 성장하였는데, 큰아들은 태어나서 젓을 먹는 유아기까지 안채에 있는 어머니 방인 건넌방에서 지낸다. 그러다가 동생이 태어나고 젓을 떼면서 할머니 방인 안방으로 옮겨간다. 또 동생이 태어나서 할머니 방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늘어나면 사랑채에 있는 할아버지 방으로 옮겨서 생활하게 된다. 혼인을 하면 사랑채의 작은 사랑방이 큰아들의 방이 된다. 작은 사랑방에서 생활하던 큰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게 계승을 받고 큰 사랑방으로 옮기게 된다. 딸의 경우는 태어나서 유아기까지 안채에 있는 건넌방에서 어머니와 지내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할머니 방인 안방으로 옮기는데, 여기까지는 아들의 경우와 같다. 딸이 7-8세가 되면 안채에 있는 아랫방이나 별당으로 거처를 옮기는 경우도 있으며, 혼인하기 전까지 할머니 방인 안방에서 함께 지내는 경우도 있다(홍형욱 1992). 잘 때는 꼭 할머니방(안방)이나 어머니방(건넌방)에서 자고 낮에는 안사랑채에 건너가 있기도 한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형편에 맞게 거처하는 방을 이리저리 바꾸었다.

그렇다고 자녀만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상류주택의 경우 아이들의 공부를 위한 공간을 주택 내에 따로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아들 혹은 딸을 위한 공간으로 서당이나

초당, 별당을 둔(홍형욱, 1992) 집도 간혹 있었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았다.

전남 구례 운조루의 경우<sup>2)</sup>, 자녀의 공간사용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큰자부의 경우, 갓 시집 왔을 때 새방에서 잠시 거쳐하다가 옷방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주로 이 공간에서 거처할 때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다. 출생과 함께 아이들의 공간이동을 살펴보면, 화살표와 같다. 먼저 남아의 경우 옷방에서 태어나 동생들이 태어나면 할머니가 거처하는 안방으로 건너오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사랑채로 공간이동을 하였다. 장자를 우대했던 부계사회의 전통에 따라 장자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들에 비해 점유할 수 있었던 공간이 좀 더 뚜렷했다. 장자인 자녀는 사랑채로 이동하면서 누마루가 딸린 작은 사랑을 점유하게 되며, 둘째 이하 아들은 사랑채의 다른 방들(중방)을 배정받기도 하였다. 여아의 경우 옷방에서 태어나 안방으로 옮겨가게 되는 과정은 남아와 같으나, 일정 나이가 되면 안채의 작은방 등으로 옮겨감으로써 유교적 가르침에 따라 안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림 3> 구례 운조루의 평면도<sup>3)</sup>  
(실선은 남아, 점선은 여아의 거처이동)

- 2) 전라도 지방의 전통적인 풍속은 ‘종신형’이다. 즉 시부모가 죽을 때 까지 안방과 큰사랑방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운조루의 경우 ‘은거형’으로 나타났는데, 시부모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아들내외에게 방을 내어주고 안사랑으로 거처를 옮겨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운조루의 경우 아이들의 출산 시기에 큰자부는 옷방에 거처하는 시기로 시부모가 안방을 내어주고 안사랑으로 물러가는 시기엔 이미 아이들도 많이 성장했을 무렵이라 할 수 있다.
- 3) 홍형욱(1992) 「한국 住居史」 p156 그림에 필자가 동선 분석을 첨부하여 재구성함

### III. 근대적 아동관과 생활영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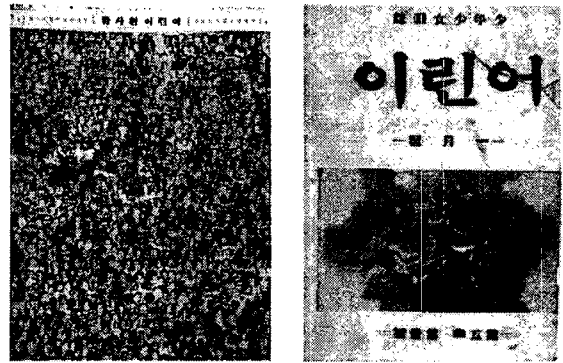
#### 1. 1920년대 이후 등장한 근대적 아동관, “어린이”의 탄생

전통적인 아동관은 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선각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점차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구수진 역, 2002). 하지만 아동에 대한 묘사는 서구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근대초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인 존재로 보고 있었다.

20세기 전반기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아동기(childhood) 라는 근대적 개념은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었을까. 1920-30년대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의 주목을 끄는 점은 국가와 사회는 각종 정책과 어린이 보호사업을 통하여 어린이와 자녀의 양육문제에 개입의 노력을 시도했다는 점이다(김혜경, 1997). 당시 아동에 대한 수많은 담론과 실천은 대개 ‘신체’에 관한 것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각종 신문기사와 계몽의 글에서 보여지는 ‘양육개량론’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정신적·지적 측면의 교육이 지배적이었던 전통사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진 점(한국역사연구회, 2002)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문의 대를 잇는 존재였던 아동에게 있어 의미론적 혁명은 방정환에서 부터 출발하였다. 그는 아동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아동들의 감성을 중요시한 아동중심교육을 펼쳤다. 일제의 지배를 받던 당시 상황에서 미래의 변화는 아동에 의해 주도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1923년 3월 『어린이』지(誌)의 간행과 색동회의 탄생은 기존 아동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아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일조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한 방정환<sup>4)</sup>은 하나의 용어를 바꿈으로써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다. ‘아이, 아이들’ 하고 부르던 그 아동이 귀찮고, 천해 보이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을 듯한 생각이 들지만, ‘어린이, 어린이들’ 하고 불러보면, 왠지 그들이 존귀스럽고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한국역사연구회, 2002). 어린이란 용어의 탄생을 필두로 아동 존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근대화 진행과 더불어 부각되었으며, 이후 주거공간계획에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4) 식민지 시대의 베스트셀러였던 방정환의 번역 동화집 「사랑의 선물」(1922) 서문에는 그 당시 어린이와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과거의 어린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학대받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운 속에서 우리처럼, 또, 자라난 불쌍한 어린 영(靈)들을 위하여 그윽히 동정하고 앗기는 사랑의 첫 선물로 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즉 근대화 초기 아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불쌍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림 4> 어린이 천사람(동아일보 1923. 5.25); 사진에 등장하는 어린이는 영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지금의 어린이로 불리는 초등학교 학령기의 아동보다는 그 연령의 범위가 넓었음을 알 수 있다.(좌)

<그림 5> 잡지 「어린이」 창간호 책표지(동아일보 1925.1; 천정환,2003 재인용)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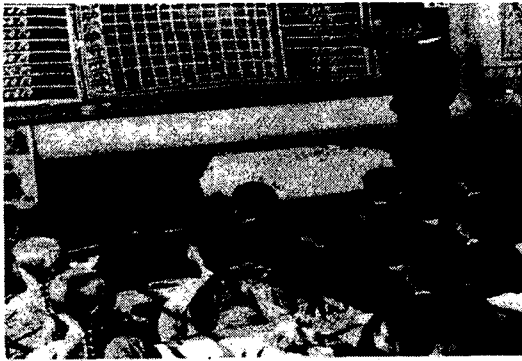
#### 2. 집과 학교, 이분화된 일상생활의 장

근대로의 사회변화는 자유와 자율성의 확대과정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자기생산적 규율체계가 내면화되는 훈육화과정이기도 하며, 이러한 규율화는 학교나 가족, 사법체계 등 제반 사회적 영역에서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 동즐로(J. Donzelot, 1977; 김혜경, 1997 재인용)는 근대 사회와 근대적 주체의 형성에 있어서 주거공간을 근거지로 한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밝힌 바 있다. 즉 이전의 공동체나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주거를 중심으로 한 규율적 생활방식의 습득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근대 가족의 형성은 개별 가정의 범위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사회화 과정으로서 학교 등 제반 사회적 세력의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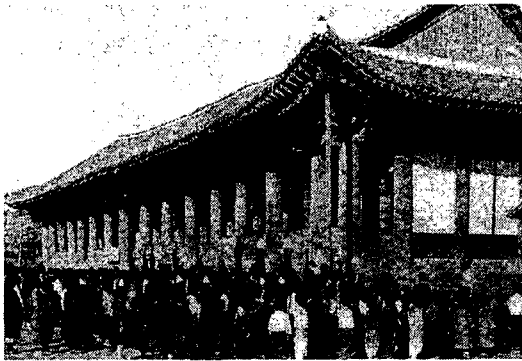
개화기 가족에게 요구된 ‘교육적 역할’ 변화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무엇보다 ‘자녀를 학교에 보낼 것’이었다. 아이들을 더 이상 가정의 틀 안에 묶어두지 말라는 사회적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의 틀에 갇혀 있던 아이들을 사회로, 그리고 학교로 나오게 하는 것이 당대 지식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졌다<sup>5)</sup>. 그러나 가정 내 아동의 영역을 보다 넓은 사회로 끌어내려고 했던 노력들은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으로 인해 학교가 악용되면서 다시 뒷걸음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학교

5) 이미 조선 후기부터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공식적인 학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었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 1894년 甲午教育改革을 통해 국가가 보다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가족의 품에서부터 분리하여 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이듬해인 1895년 공포된 ‘소학교령’을 통해 소학교 설립이 추진되면서 이러한 의지는 더욱 가속화되었다(홍일표, 1997).

를 통해 개별가족을 철저히 조사하고 감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이란 이름의 문명'의 침투는 계속되었고, 1920년대 이후에는 집을 벗어난 학교교육이 일반 민중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경로로 받아들여졌으며 1930년대가 되면 이제 학교에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변화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학교교육이 선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하에서 아이들은 자율 반 강제 반으로 주거영역을 벗어나 학교와 집을 오가게 되었으며, 학교라는 탈주거 환경은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예비사회 영역으로서 아이들에게 주어졌다.



<그림 6> 1920년대 초등여학교 수업  
(출처: 천정환, 2003)



<그림 7> 식민지시기 보통학교의 조희  
(출처; 한국역사연구회, 2002)

학교라는 영역은 아동에게 있어 주거 영역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회적 생활공간이 되었으며, 이러한 예비사회인으로서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주택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교는 근대문명을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했으며, 신식교육을 받은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육은 일부 계층의 아동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으며, 소작농이나 가난한 농가의 아이들은 제대로 된 학교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다. 일제하 소작농가 자녀의 경우 식민지적 자본주의화가 가져온 가정생활의 피폐로 인해 어린이들은 이전보다 오히려 노동의 부담이 많아졌으며, 보통학교의 교

육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문소정, 1990). 토지조사 사업 등에 의해 소작을 지을 땅마저 빼앗긴 소농가의 어린이들은 어른과 마찬가지로 생계의 일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노동자(김혜경, 1997 재인용)였기 때문에 상류계층의 아동처럼 아동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주거 내 독립된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 IV. 아동실의 등장과 주거공간 계획에 나타난 변화

사회가 문명화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분화' 과정은 가족구조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나라에서도 핵가족으로 가족제도의 중심이 이전되고 정서적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아이들에 대한 관념에도 가문을 잇기 위한 아이가 아닌 그 자체로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바꾸어 놓게 되었다.

아동기는 일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시기로, 신체발달과 지적발달,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등을 통해 아동은 주변환경에 대한 지각이 확대된다. 또한 아동자신도 환경의 자극에 대하여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주거공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아동기에 있어 '주거'는 가장 근접한 공간환경으로서 그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동전유공간인 '아동실'에 대한 관심은 아동 자체에 대한 반성과 재해석에 따라 등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절차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된 아동실은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그 이상적인 모델은 무엇이었을까. 또한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던 시기, 건축가들이 그렸던 이상적인 아동실은 무엇이었으며, 일반대중에 의해 시도되었던 아동실은 어떠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당시에 개최된 공식행사와 건축가들의 작품, 잡지에 실린 일반인에 의해 제시된 주택안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1915년 <가정박람회>에서 소개된 소아실

아이들을 위한 '소아실'이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처음 선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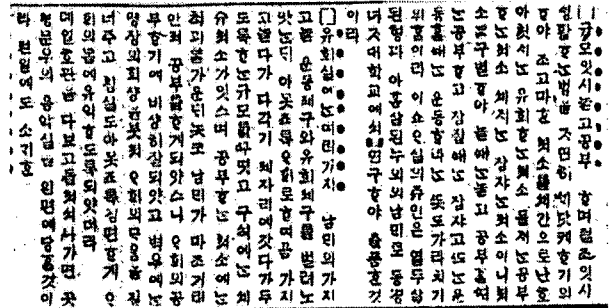
- 6) 어린이의 방을 특별한 건축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1780년 메지에르(Nicolas Le Camus de Mezieres)가 처음이었다. 그는 어린이의 방을 위한 특별한 장식과 분위기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후 어린이의 방이 조그만 크기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신체적이고 도덕적인 발달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었고, 그런 만큼 교육적 고려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하지만 이는 어린이를 위해 방을 별도로 마련해줄 수 있는 부유한 계급에게 제한되어 있었다. 침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의 방은 다른 공간으로부터 엄격하게 분리되었고, 외부인들의 접근 또한 금지되었다. 동시에 어머니의 접근가능성과 감독가능성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상층 계급에 한한 것이며, 중간층의 경우에도 아이들은 독립적인 공간을 갖지 못했고, 프라이버시라곤 없었으며, 반대로 항상 감시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었다(이진경, 2000).

것은 1915년 9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열린 조선의 「가정박람회(家庭博覽會)」에서였다. 가정박람회는 1910년대를 전후로 떠오르기 시작한 '가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확산에 일조한 큰 행사였다. 당시 매일신보는 이러한 가정박람회의 소식을 개최 이전부터 박람회가 막을 내린 이후까지 그 행사를 기사화함으로써 '가정'과 '주거생활'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이 박람회에서 소개한 모던 주택의 모습은 근대화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비추졌으며, 근대적 가정의 모델로 소개되었다. 이 행사장에 설치된 주택 모형에서는 안방, 건넌방, 부엌, 사랑방이라는 명칭 대신에 주부실, 노인실, 소아방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공간을 강조했다. 즉 개인 소유의 방을 갖는 것이 모던한 중류 가정의 척도가 되는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방의 분할은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분리를 유도하였으며, 혼자서 조용히 자신의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던한 가정이라면 갖추어야 할 기본으로 보여졌다.

다섯 개의 전시관 중 일호관에는 "소아실"이 전시되어 있었다. 매일신보에 실린 소아실의 설명(<그림 8>)을 통해 이 박람회에서 보여주고자 한 아동공간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 공간은 12살된 형과 아홉 살된 누이의 남매를 위한 것으로 "규모있게 놓고 공부하며 절조있게 생활하는 법을 자연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처소를 용도에 따라 세 칸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유희하는 처소, 둘째는 공부하는 처소, 셋째는 잠자는 처소이니, 처소를 구별하여 놀 때는 놓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잠잘 때는 잠자고 또는 운동할 때는 운동하라는 뜻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여 아동을 위한 공간을 유희실, 공부실, 침실로 나누었다. '소아실은 그 용도에 따라 세 칸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른과 아이 구분 없이 성별에 따라 한 방에 모여 집단적인 생활을 했던 구 가족제도와 비교해 볼 때, 가족 내부 간의 독립뿐 아니라 생활행위별 공간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서구적인 합리성을 들어 아동의 행위별 공간을 분리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보였다.

각 실에 사용된 인테리어 소품과 아동 용구를 살펴보면, 유희실의 경우 "유희실에는 여러 가지 남매가 가지고 놀 운동기구와 유희기구를 벌려 놓았는데, 아동으로 하여금 가지고 놀다가 각기 제자리에 갔다가 두도록 하는 규모로 꾸몄고, 구석에는 세수 처소가 있으며" 라고 하여, 운동과 놀이를 위한 기구가 배치되었을 뿐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정리정돈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간단히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다는 점을 보아 근대화 과정에서 강조되는 '위생' 개념이 아동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부방의 경우, "공부하는 처소에는 책피(책피)를 가운데 놓고 남매가 마주앉아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아이가 공부하기에 매우 잘되었고, 벽에는 명장의 초상(회상)을 붙여 아이의 마음을 길러주고"라고

소개함으로써 책을 넣어두던 '피'를 아동용 가구인 책상처럼 이용하도록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훌륭한 사람의 초상화를 벽면에 장식품으로 활용함으로써 아이의 심적인 교육도 염두에 두었음을 볼 수 있다. 침실의 경우, "침실도 아이의 몸에 유익하도록 되었더라"고만 소개되어 구체적인 가구나 장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아이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고려했음을 짐작할 수는 있다.



<그림 8> 가정박람회에서 소개된 소아실  
(출처: 매일신보 1915년 9월 15일자 3면 "名流婦人の 觀覽")

아동의 경우 따로 분리된 공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어른들의 공간에 얹혀 생활함으로써 공간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무시되었던 만큼, 개인별 공간 분리와 공간명칭의 부여는 그 무엇보다도 아동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라 할 만하다.

이후 일본에서 주택개량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개량 모델로 서구의 문화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관심은 주택개량운동과 현상설계공모전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위생을 비롯한 기능적인 개선에 주목했던 당시의 주택개량은 아동실에도 영향을 미쳐, 어른공간과의 공간적 분리 뿐 아니라 채광 및 위생, 수납 등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었다.

2. 1930~50년대 건축가의 작품에 나타난 아동실

1920년대 어린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1930-40년대에도 여전히 어린이 혹은 아동이라는 용어보다는 '어린이' 혹은 '소아'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호칭이나 서적 등에는 흔히 등장하였지만, 주택의 평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전통주택에서 살피본 바와 같이, 자녀들만의 공간이 따로 계획되지 않았으며 어른들의 거처를 전전하던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가들의 평면에서 나타나는 명칭의 변화는 주택개량과 더불어 새로운 생활과 사회상을 부여하고 있었다. 1930년대 활약했던 김유방, 박길룡 등 건축가들이 주장했던 개량주거론과 평면들을 살펴보면, 주된 골자는 '주택설비'와 '생활의 개선'이었다. 주거개량에 선구자적 역할을 한 이들의 주택

7) 매일신보는 가정박람회에 관한 기사를 그해 7월부터 11월까지 행사장 이모저모를 자세하게 기사로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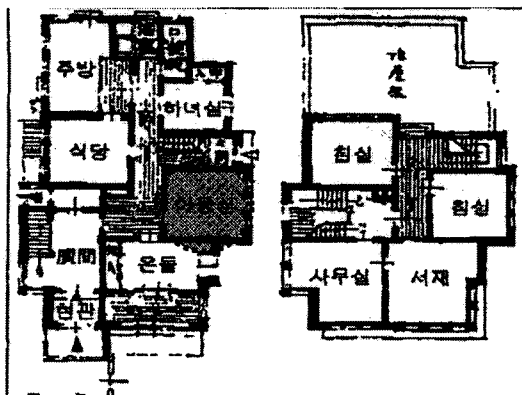
계획에서 아동이란 존재의 비중은 사실 크지 않았다. 그러나 소아실과 아동실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그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제시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지녔다고 평가할 만하다. 아동공간에 대한 인식의 이러한 변화는 다음의 설계도와 담화 내용을 통해 읽을 수 있다.

건축가 등이 참석한 ‘가정생활개선 좌담회’(1939년)의 담화중, 박길룡은 집을 지을 때 사랑방은 중요시하고 주부가 있는 안방이나 아동실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음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박길룡: “집을 설계할 때 사랑방은 중요시하고 주부가 있는 안방이라던지 아동실에 대해선 류의 하지 않는 것은 아주 모순이라구 생각하는데요. (「여성」, 19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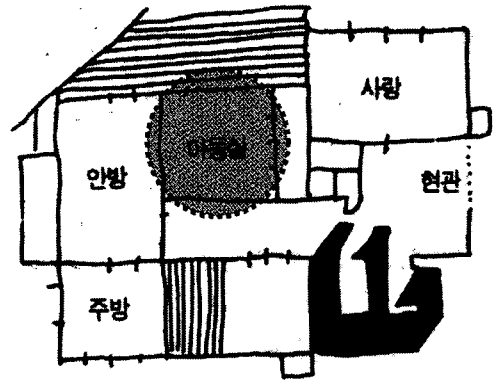
실제로 박길룡이 계획한 주택평면도에 아동실이나 주부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은 이러한 남성 위주의 전통주택에 대한 도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중심의 공간계획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설계도에 의해 주택이 실제로 건축되었는나의 여부를 떠나서, 기존의 공간계획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도면에 나타나는 아동실을 공간적 위치와 동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의 2층으로 설계된 이 주택은 일층은 주로 주방, 식당, 하녀실 등을 비롯해 ‘아동실’을 배치하였으며, 2층에 서재와 사무실, 침실을 배치하였다. 아동실은 현관에 들어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배치됨으로써 윗층에 배치된 어른들의 공간과 확실한 경계가 지워져 있으나, 방의 위치는 늘 어른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 있다. <그림 10>의 ‘아동실’은 사랑과 안방 사이, 즉 집의 중앙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안방과 아동실 전면에 마루가 배치되어 있다. 아동실의 개구부는 전면 마루와 측면 복도로 나 있는데, 안방이나 사랑과 직접 마주 하지 않도록 개구부를 설치함으로써 각 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했다.



<그림 9> 金明鎭씨 주택의 아동실 (1931년 박길룡 설계)<sup>8)</sup>

8) 그림출처: 안성호(2001) 재인용



<그림 10> 문화주택에서의 아동실 (박길룡의 개량주택안 1936)<sup>9)</sup>

측면현관의 속복도식으로 설계된 박길룡의 개량주택(안10) (<그림 11>)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아동실’은 주부실과 응접실 사이에 배치되어 있으며, 채광을 고려해 주택 전면부분에 배치되었다. 아동실을 중심에 배치한 점은 아동실이 그 집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곳에 위치했다라고 보기 보다는 어른들, 특히 주부의 동선이 빈번히 겹치는 곳에 둠으로 인해 간접적인 통제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주택을 계획한 박길룡은 아동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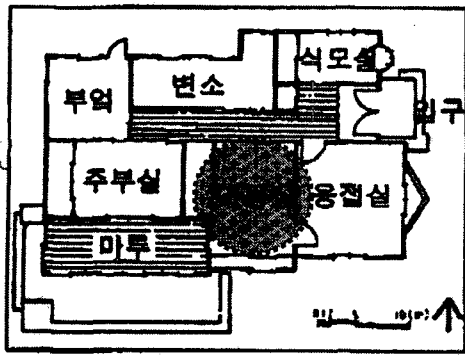
“兒童室은 三坪되는 溫突로 南面に 窓은 二重鏡 窓으로 그 사이로 一尺五寸假量 뜨게하고 이골에 花草분을 느리놓으면 溫室같이 使用될 수 있고 그 밑을 房 안에서 使用하는 置物處로 할 수 있다(박길룡, 「신동아」 1936.6, p131)”

그가 계획한 개량주택의 아동실은 화분을 놓을 수 있는 작은 온실과 수납공간에 대한 배려가 담긴 공간이었다. 남쪽으로 면한 벽에 설치하도록 한 1척5촌(一尺五寸)<sup>11)</sup> 너비의 이중 창은 아동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한 작은 정원으로 꾸미도록 하였으며, 그 밑 공간을 아동을 위한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박길룡은 정리정돈을 위한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인 측면을 함께 강조함으로써 공간으로서의 ‘기능성’과 ‘위생’ 뿐 아니라 아동 자체에 대한 관심을 함께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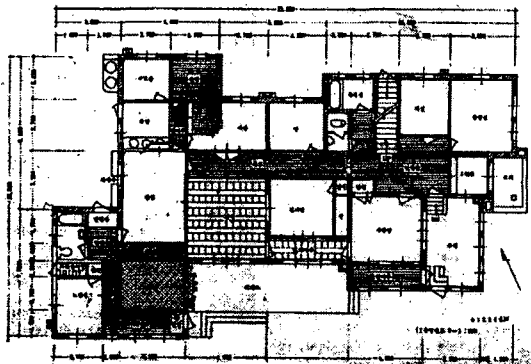
9) 그림출처: 김선재(1987) 재인용

10) 박길룡의 改良住宅一案, 「신동아」 1936년 6월호(6권 6호) p128-131

11) 一尺五寸: 1척은 1m의 10/33으로서 약 30.3cm에 해당하는 길이이며, 촌(寸)은 치라고도 하는데 치의 열배가 척(尺)에 해당한다. 5촌(五寸)은 약 15.7cm로써 1척5촌은 약 46cm이다.



<그림 11> 박길룡 改良住宅一案의 아동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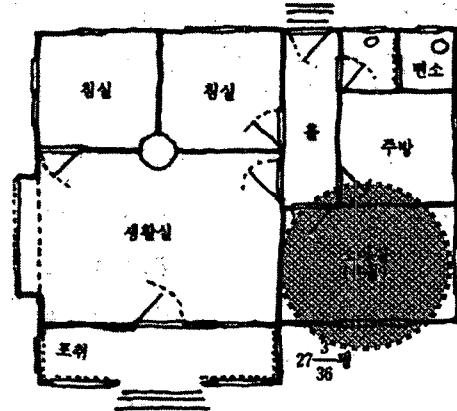
<그림 12> 박길룡 개량주택평면도의 아동실  
"신교동 모씨댁"(1940년도 시안)<sup>13)</sup>

<그림 12>의 주택의 경우, 우측은 사랑방을 중심으로 한 남성공간이, 좌측은 안방을 중심으로한 여성공간을 둠으로써 전형적인 전통주택의 공간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다. '아동실'은 여성공간에 배치되어 있는데, 안방과 노인실에 근접하게 놓여 있으며, 넓은 뒤탈마루와 복도로 둘러싸여져 있고, 채광 등을 고려해 테라스에 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아동실을 안방이나 노인실과 독립해서 두기는 했지만, 그 위치는 아동기에 안채를 중심으로 거주했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그대로 살린 형식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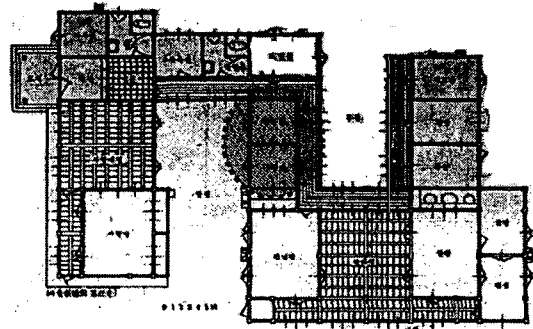
김유방이 계획한 주택(<그림 13>)에서의 '소아실'은, 현관을 지나 홀 가장 양쪽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온돌방으로 계획되었다. 서구적 개념의 생활실은 지금의 거실로 가족 단란의 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하였는데, 소아실의 경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구부는 없으며 홀을 통해서만 생활실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외기에 면하는 창을 두 벽면에 둠으로써 충분한 환기와 채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장기인의 1938년도 개량주택평면(<그림 14>)은 안채와 사랑채를 ㄱ자형으로 배치시킴으로써 전통 주택의 공간구성을 응용

하였다. 분리된 안채와 사랑채의 각 실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아동실'과 노인실을 배치하였다. 아동실은 사랑채에 속하는 중정으로 창이 나 있으며, 출입문은 아동실 앞 복도에 면해 있어 안채와 연결되기 때문에, 안방에서 안변소를 가기 위해서는 아동실 앞을 지나치도록 되어 있다.



<그림 13> 1930년대 김유방의 주택평면에 나타난 소아실<sup>14)</sup>



<그림 14> 장기인의 개량주택평면도에 나타난 아동실(1938년도)<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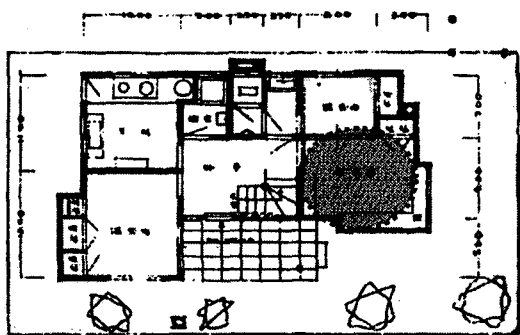
건축가 김태식씨가 직접 설계한 자택(<그림 15>)의 경우 어린이방을 온돌로 하였으며, 책장을 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책장 오른쪽에는 건너방으로 가는 후랫쉬도어를 달아 놓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벽이나 천장은 회반죽 바르기, 목부(木部)는 상아색 락카칠을 하는 등 방 모든 부분의 디자인은 건너방과 같게 하여, 공부할 위한 가구 외에는 아동실이라고 하여 특별한 계획적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 그림출처: 「신동아」 1936년 6월호(6권 6호) p128-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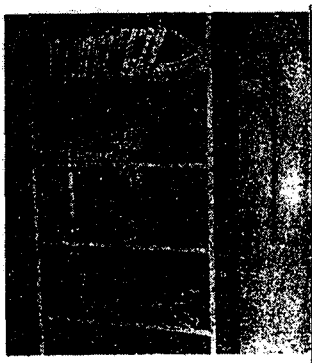
13) 그림출처: 장기인(1981). 한국주택과 주거생활(II). 건축사, 142, 21-27.

14) 그림출처: 김선재, 1987 재인용

15) 장기인(1981). 한국주택과 주거생활(II), 건축사, 142, 21-27.



어린이방  
(CHILDREN ROOM)  
맞은편에 책상, 오른쪽  
에 건너방으로 가는 문  
있어야하며 보신다  
침방이며 잘 못하  
의 모-문것이 건너방  
과같은 문이어야



<그림 15> 1956년 건축가 김태식씨 덕16) 평면도와 어린이방 모습

이처럼 근대적 주택을 토착화하려는 노력은 당시 건축가들의 작품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의 주택계획은 우리나라의 전통주택에서의 생활양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본식의 주택근대화 방식이 섞인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실의 경우 근대적 가족의 모델인 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부실이나 생활실 등 다른 실과 마찬가지로 공간 분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분화는 개인생활을 존중하는 서구적인 생활양식으로 유도함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가들이 계획한 주택평면상의 '아동실' 등장은, 실(室) 디자인에 있어서는 다른 방과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 이후 주택계획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3. <전국주택설계현상모집>17) 당선작품에 나타난 아동실

주택개선을 관장하게 된 보건사회부에서는 새로운 주택을 보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1회 전국주택설계현상모집'(1958

16) 출처: 건축가의 집, 김태식씨택, 「오늘의 신주택」 1956. 4. pp.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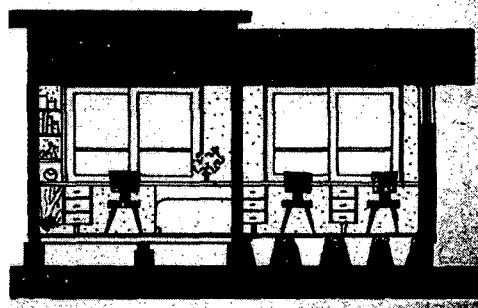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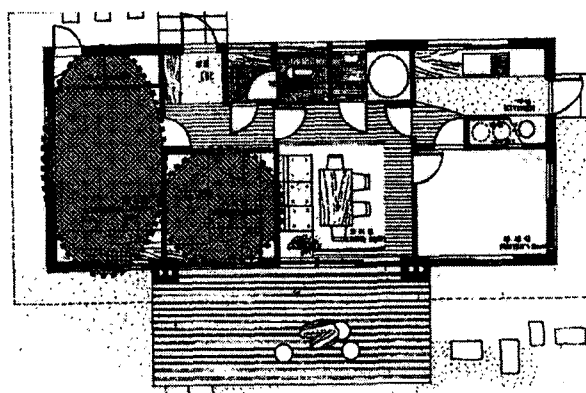


제2회 전국주택설계현상모집 공고, 단기 4292년(그림출처: 「제2회 전국주택설계현상당선작품집」, 단기 4293년 :1960년)

17)

년)을 개최하였으며, 이듬해에도 '제2회 현상 모집'(1959년)을 개최하였다. 광복 이후 일제의 영향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전통주택문화의 전통성을 회복하고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자각하고자 하였음을 본 행사의 취지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현상설계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자조주택과 국민주택 등으로 나누어 공모되었기 때문에, 각 주택 유형별 뿐 아니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건축가의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었다.

단독주택 설계부문에서 1등을 한 작품을 살펴보면(<그림 16>), 부부와 학생 1인, 아동 2인을 위한 주택디자인으로서 제목을 "양식을 좋아하는 가족에게 알맞은 개량주택"이라고 하였다. 우측 영역은 부부의 공간과 가사작업공간을 배치하였으며, 아동을 위한 공간은 모두 좌측에 배치하였다. 아동실 중 오른쪽 1인실은 독립된 공부방이 요구되는 연령의 학생을 위한 방으로 유리창이 있는 면에 책상을 배치하고 그 좌측 벽면 전체에 수납공간을 두었으며, 우측에는 침대를 배치하였다. 아동 2인을 위해 디자인된 방은 2인용 책상이 유리창이 있는 벽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수납을 할 수 있는 클로젯(closet)이 맞은편 벽에 설치되어 있으며, 침대를 두지 않아 이부자리를 피고 자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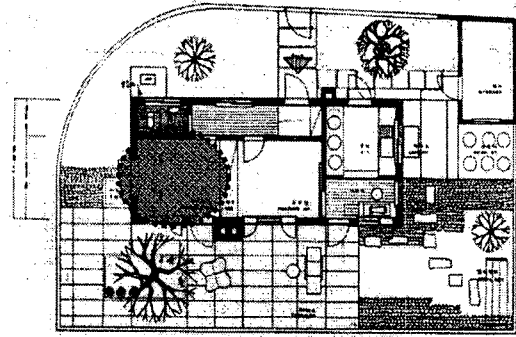


<그림 16> "한양식 문화주택" 1등 안영배·천병욱 작 평면도와 아동실 입면도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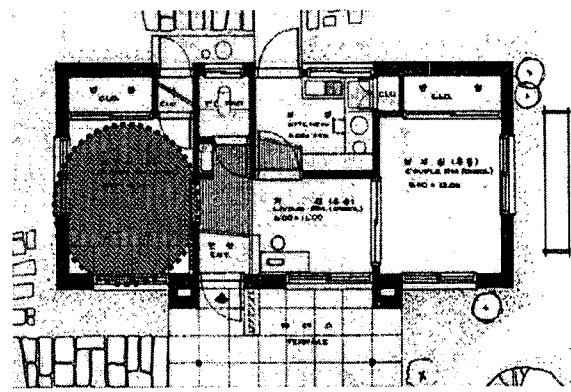
18) 「제1회 전국주택설계현상당선작품집」 (1958년)

“양식을 좋아하는 젊은 부부에 알맞은 개량식 주택”이란 제목으로 3등을 한 작품(<그림 17>)으로, 북쪽 현관을 중심으로 우측은 부엌, 욕탕, 식당겸 거실을 두었으며, 좌측에 아동실과 부부침실을 두었다. 아동실의 경우 마루와 식당겸 거실, 테라스로 통하는 문이 삼면에 설치되어 있어 각 공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특히 아동실은 창을 많이 설치하였으며, 책장과 책상 뿐 아니라 소파와 테이블도 두었다. 소파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볼 때 단지 아동만이 사용하기 위한 가구이기 보다는 다른 가족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윤병양 작품에서 나타난 3개의 출입구와 넓은 유리창, 소파가 배치된 아동실은 아동만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존중해주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파트 부문 1등 작품(<그림 18>)에서는 면적을 통해 부부실과 아동실 간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부부실과 비슷한 면적의 아동실을 두 개 뒀으로써 아동 공간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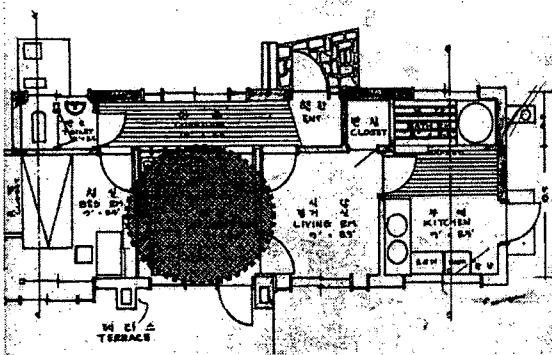
다른 단독주택 작품(<그림 19>~<그림 20>)에 나타난 아동실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부부실과 아동실은 마루나 거실 등을 통해 동선 분리가 되어 있었다. 또한 남쪽이나 테라스에 면하도록 배치하였으며, 가구는 주로 책상과 의자, 책장, 침대가 도면에 사용되어 아동실을 구성하는 기본 가구로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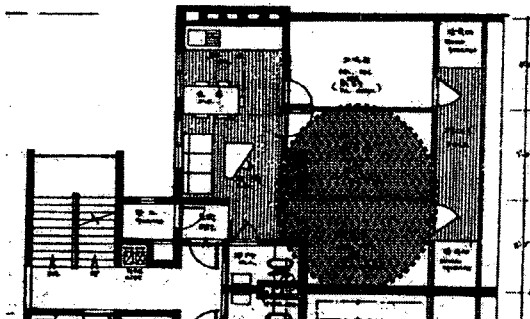
<그림 19> “도시형 자조주택” 1등 안영배 작(21)



<그림 20> “도시형 자조주택” 가작 김희중, 서남식, 임용택 작(22)



<그림 17> “개량식 주택” 3등 윤병양 작(19)



<그림 18> “아파트” 1등 송중석 작(20)

19세기 서양의 중간계급의 주택에서 방들은 부모의 방과 자식의 방이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부모의 침실은 아이들의 눈으로부터 충분히 차단되도록 하였다. 아이들 또한 성별에 따라 남자아이의 방과 여자아이의 방으로 분리되도록 했다. 따라서 방은 부모의 방과 남녀 아이의 방, 최소한 3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거공간의 분할에서 기준과 모델(이진경, 2000)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건축가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부모침실과 분리된 아동실은 근대적 가족 생활을 담아낼 수 있는 근대주택을 그려내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위 작품들에 의하면, 아동을 위한 공간은 부부공간 못지 않게 중요한 공간으로 치부되었으며, 단순히 온돌방, 침실이 아닌 ‘아동실’이라고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특성을 배려한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당선작이 일반주택에서 얼마나 적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보건사회부의 공모전 주택은 계획안이 출판되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영향력은 커져서 주택영단의 공영주택과 상호 관련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 평면구성의 내용은 향후 공영주택계획에 널리 영향을 끼쳤고 일부는 적용되었다(유재우, 2004)고 보고 있다. 따

19) 「제1회 전국주택설계현상당선작품집」 (1958년)  
20) 「제1회 전국주택설계현상당선작품집」 (1958년)

21) 「제2회 전국주택설계현상당선작품집」 (1960년)  
22) 「제2회 전국주택설계현상당선작품집」 (1960년)

라서 매우 중요한 공간의 하나로 다루어진 아동실 역시 이후 실제 건축된 주택계획안에서도 충분히 배려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여성잡지와 산업전람회 나타난 아동실

부부 단위의 가족이 점차 중요해질수록 가정의 기대와 행복은 아이들에게 집중되었다. 따라서 근대적 가족 형태의 출현을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가정의 일반화와 연결시켜 설명되기도 한다. 주거는 아동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달시키고 타인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도와주며 전통적인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하기(Dovey, 1985; 황연숙 외, 2003 재인용) 때문에, 아동중심으로의 가족 이데올로기 변화는 주거계획에 있어서도 아동공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였다.

아동실이 갖는 의미는 첫째, 아동에게 적합한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아동의 흥미와 취미를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아동에게 자아만족감을 준다. 둘째, 아동은 성인이나 기타 가족원의 간섭을 싫어하므로 이들의 방해없이 개인적 공간에서 생활을 보장받기를 원하게 된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된 아동은 타인의 사생활도 존중할 줄 알게 되며 타인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법도 배우게 된다. 셋째, 자기방과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규율, 책임감 등이 길러지기 때문에 아동에게 있어서 아동실의 가치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최효선,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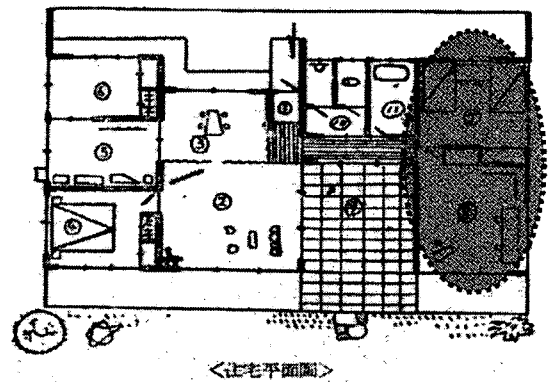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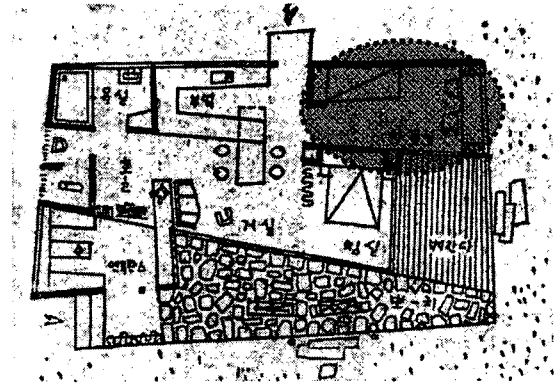
아동실은 꼭 주어져야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던 60년대 한 주부는, 신규주택을 계획할 때 아동실 중심의 주택으로 디자인하였는데, 그녀는 아동을 개인생활권을 가진 독립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었다.

어느 집에 가보면 집안 식구 전부가 한 방에서 같이 기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겠지만 그 불편함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개인권에의 악영향은 이루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다 큰 아이들과 같은 방에서 기거함으로써 부부지간의 곤란한 문제는 고사하고라도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개성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주택을 지을 때는 그 집이 단 몇 평 위에 세워진 다 하더라도 가장 중점을 둘 것은 부모의 침실과 어린이 침실의 분리이며 따라서 아동실에 중점을 둘 것은 물론입니다.....아동실의 위치는 감독과 지도를 고려해서 어머니 또는 시중드는 사람의 눈에 뜨일 수 있으리만큼 접촉을 가져야 하는 까닭에 어머니가 항상 거처하는 곳 예를 들어서 부엌이나 가사실 또는 거실 같은 곳에서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것은 원칙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나친 간섭없이 자립적 환경을 주기

위하여서는 보호자들의 생활과 너무 뒤섞이지 않는 위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원 1961.6)

자립적인 환경을 보장하면서도 일정한 부모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된 주택은 <그림 21>의 위쪽 평면도에서와 같은 공간배치를 보이고 있다. 즉 부부실과 아동실 사이에 거실 등 가족공용생활공간을 배치하여 아동의 개인생활권을 보장하되, 공부방과 실내정원 사이에는 직접 출입구를 두지 않고 복도를 통해서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공부를 하다가 수시로 실내정원에 놀러 나오는 행위를 통제하고자 했다. 아동실과 독립된 공부방이라는 비교적 넓은 공간을 할애한 것은 아동으로서 해야 하는 학습에 소홀함이 없도록 책임 지음으로써 아동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그림 21>의 아래쪽 평면도 경우, 우측 영역은 아동실과 부부침실이, 좌측 영역은 가족 공용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부부실은 벽체가 아닌 주름문을 달아 거실과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공간적 차단이 약하지만, 아동실은 공부방 겸 침실로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방문 앞이 바로 부엌으로 연결되어 있어 주부가 항상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다.



(위) 다른 영역과 분리된 아동실(여원, 1956.8)  
(아래) 공부방 중심의 평면도(여원, 1961.6)

<그림 21> 1950-60년대 여성잡지에 나타난 아동실



<그림 22> 산업전람회 생활과학관에 전시된 아동실이 있는 표본주택(조선일보 1962년4월24일)

당시 산업전람회의 생활과학관에 전시된 표본주택(<그림 22>)의 디자인에서도 거실에 의해 부부침실과 분리된 아동실을 찾아 볼 수 있다. 전시된 모형도에 의하면, 어린이 남녀를 두 명으로 보고 침대를 아래위로 나누어 놓았다. 침대 밑에는 옷장을 만들어 제각기 옷을 독립적으로 넣어 쓰도록 하였으며, 책상을 크게 짜서 서로 마주보고 앉게 하고 사이에 책꽂이를 양쪽에서 쓰도록 만들어 서로 독립하여 공부할 수 있게 하였다. 핵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 표본주택에서 아동실은 입식의 가구들이 배치된 공간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주택에서도 아동이 방을 나서면 부부실을 직접 마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실에 접해 있음으로 인해 어른들의 시선을 항상 받는 위치에 놓여있다.

1950-60년대 주택평면 계획에 나타난 아동실의 공간배치는 성인들과의 분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세대간의 프라이버시가 더욱 강조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건축가들의 작품과는 달리 잡지에서 소개된 일반인들이 그리는 아동실은 보다 아동의 생활을 배려한 점이 눈에 띈다.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학습 등 아동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아동실을 계획하고자 하였으며, 가구의 배치나 실내장식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또한 아동실의 공간배치를 통해 여전히 어른의 보살핌과 지도 감독이 필요한 시기임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 론

근대화의 문물이 밀려오기 이전, 대가족 제도 하에서의 아동은 불완전한 자로서 치부되었다. 유교적 가르침이 철저했던 시기의 아동은 남녀로 분리된 주거영역을 벗어나기 어려웠으며, 동성의 어른들 영역에 편입된 채 예비 성인으로서 자질을 하나씩 익혀나갔다. 따라서 '작은 어른'인 아동은 무엇을 배우고 익히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완전한 성인에 도달되느냐가 중요

했기 때문에, 어른의 공간에 편입되어 있던 아동의 주거생활 영역은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불완전한 어른'으로 치부되었던 전통적인 아동관은 서구문물의 유입과 일제식민지 지배하 라는 시대적 상황을 겪으면서 차츰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아동을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희망의 대상이자 근대 가족의 한 축으로 보기 시작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던져진 "어린이"란 새로운 용어는, 당시 영향력은 미미했을지 몰라도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주거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던 아동의 활동 반경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즉 근대식 학교의 보급과 교육의 사회화는 주거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부장적이고 성인중심적인 세계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데 일조하였다.

문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화' 과정은 친족 중심의 확대가족을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핵가족으로 옮겨가게 하였으며, 공동체 지향적인 사회관계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를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다. 아동 중심의 가족은 근대화의 대표적 상징 중의 하나로, 가정박람회나 주택설계현상 공모전, 건축가의 작품 등에서 제시된 근대적 생활이 가능한 주택디자인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 실험의 장이 되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새로운 가족과 근대적 삶을 담기 위한 개량된 주택안 들이 속속 선을 보였으며, 이후 주택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1930~40년대 남성중심의 공간에 대한 반성 하에 제시된 박길룡 등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아동실"이란 명칭의 등장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합리적인 생활의 유도뿐 아니라, 아동을 포함한 개별가족을 계획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에서 가족 내 아동의 지위 변화는 확실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서구적 문물과 적절히 절충된 당시 평면계획에서, 아동실은 공간적 분리는 되었지만 어른들의 침실과 가까이 뚫으로써 여전히 보호받는 존재여야 함이 강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평면계획에서 나타난 이상적 모델에서는 부모 영역과 아동영역을 거실 등 가족 공용공간에 의해 분리시킴으로써 세대간의 프라이버시와 독립된 영역을 보다 강조하였고, 어른공간과 위계성이 없는 평등한 공간 점유 양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서구적 생활에 대한 동경은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주거공간이 자리 잡는데 일조하였으며, 사회화 도구인 학습의 비중이 커지면서 아동실은 공부방으로의 성격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서양식 침대와 입식 책상, 책장 등이 아동실의 주된 가구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아동관과 가족제도의 변화가 오랜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처럼, 주거공간에서의 아동영역도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사회이념의 변화와 가족제도의 도전이란 치열한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등장하게 된 아동 공간은 '주거계획 상 드러난 또 하나의 상징적 근대화'라 할 것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근대화 시기 주거공간계획의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통해 달라진 아동공간을 아동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받아들였을 지에 대한 고찰이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접수일 : 2005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07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9월 07일

**【참 고 문 헌】**

김선재(1987). **한국 근대 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1997). 일제하 자녀양육과 어린이기의 형성: 1920-30년대 가족담론을 중심으로.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김진균·정근식 편저. 문학과학사. 223-275.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편(2000). **한국전통 어린이복식**. 단국대학교출판부.

문소정(1990). 1920~30년대 소작농가 자녀들의 생활과 교육. **한국사학회연구회논문집**, 20. 문학과지성사. 72-120.

박명희 외 (2003). **한국의 생활문화**. 교문사

성춘식·신경란(1990). **이부자리 피이 놓고 암만 바래도 안 와. 뿌리깊은나무**.

신양재(1994).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나타난 아동기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2(5), 125-134.

안성호(2001). 일제강점기 주택개량운동에 나타난 문화주택의 의미. **한국주거학회지**, 12(4), 185-194.

유재우(2004). 광복전후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변화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0), 59-66.

이정덕·송순(1993). 「小學」에 나타난 童蒙期 禮節教育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57-168.

이천시지편찬위원회(2001). **개인생활과 마을**. 이천시지6. 134.

이규숙·김연옥(1984). **이 '계동 마님'이 먹은 여든살. 뿌리깊은 나무**.

이진경(2000).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장기인(1981). 한국주택과 주거생활(II). **건축사**, 142, 21-27.

천정환(2003).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최효선(1978). **각 계층별로 본 아파트 아동주거공간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한국역사연구회(2002). **우리는 지난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2. 역사비평사**.

혼다 마스코 지음/구수진 옮김(2002). **20세기는 어린이를 어떻게 보았는가**. 한림토이북.

홍일표(1997). **주체형성의 장의 변화: 가족에서 학교로.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홍형욱(1992). **한국 住居史**. 민음사.

홍형욱(2005). 근대 이후 한국주거의 미시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 **한국근현대연구팀 2005학술심포지움자료집**, 1-25.

황연숙·이연숙(2003). 아동실의 물리적인 환경이 아동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5), 95-104.

박암종, <http://web1.designdb.com>

매일신보 1915.9.15일자

조선일보 1962.4.24일자

동아일보 1923.5.25일자

여성. "가정생활개선 좌담회" 1939년 2월호. **현대사**. 18-23.

여원. 1956. 8월호, 1961.6월호.

신동아. 1936년 6월호 6권6호. 128-131.

오늘의 신주택. 건축가의 집. 김태식씨택". 1956.4월호. 15-17.

제1회 전국주택설계현상당선작품집. 1958.9. 보건사회부

제2회 전국주택설계현상당선작품집. 1960.3. 보건사회부

Morris, E. & Winter, M.(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N.Y.: John Wiley and Sons.